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4.24

미 증시, 개별 업종 종목 장세 속 장 후반 상승 전환 성공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금융, 리튬 관련주 부진 불구 실적 호전 기업 중심 강세 전환

•미 증시는 미국에서 7번째로 큰 은행인 트러스트 파이낸셜(-6.00%)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지역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칠레 정부의 리튬 산업 국유화 계획 발표로 앨버말(-10.00%) 등 리튬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는 등 개별 업종 이슈로 하락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실적 호전 기업들의 강세와 함께 최근 약세를 보였던 일부 IT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이자 재차 상승하는 등 방향성 없이 보합권 등락을 보이다 장 후반 상승 전환(다우 +0.07%, 나스닥 +0.11%, S&P500 +0.09%, 러셀2000 +0.10%)

특징 종목: 아마존 강세 Vs. 앨버말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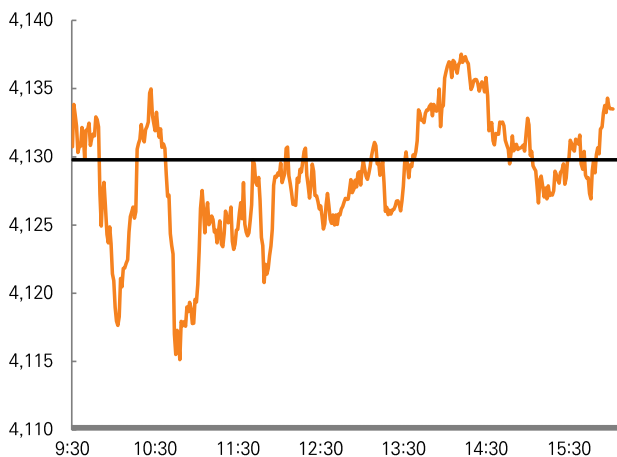
•아마존(+3.03%)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JP모건이 여타 전자 상거래 소매업 부문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고 주장하자 강세. 테슬라(+1.28%)는 최근 주요 차종 가격 인하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모델 S와 X 가격을 소폭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강세. 일라이릴리(+2.78%)은 알츠하이머 관련 보장 한도 규제 완화 기대와 6월말 이전에 진행중인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데이터 기대하자 급등. 앨버말(-10.00%)과 리벤트(-5.45%) 등 리튬 업체들은 칠레 정부의 리튬 산업 국유화 계획 발표로 SQM(-18.57%)이 급락하자 동반 하락

한국 증시 전망: 매출 소화 속 종목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0.97%, MSCI 신흥 지수 ETF는 0.9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8.2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3% 하락. KOSPI는 보합 출발 예상.

•미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개별 업종, 종목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종목장세를 보여 한국 증시도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 이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2% 하락했고, 리튬 관련주의 부진으로 한국 증시에서 관련 종목에 대한 치익 실현 욕구를 높일 것으로 전망. 물론, 미국과 유럽 서비스업 PMI가 개선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특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 실적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며 보합권 출발 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44.40	-0.73	상해종합	3,301.26	-1.95
KOSDAQ	868.82	-1.91	홍콩항셍	20,075.73	-1.57
DOW	33,808.96	+0.07	베트남	1,042.91	-0.60
NASDAQ	12,072.46	+0.11	유로스톡스 50	4,408.59	+0.54
S&P 500	4,133.52	+0.09	영국	7,914.13	+0.15
캐나다	20,693.15	+0.30	독일	15,881.66	+0.54
일본	28,564.37	-0.33	프랑스	7,577.00	+0.5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변화 요인

① 개별 종목과 업종 차별화

S&P500 기업들 중 18%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어닝 서프라이즈율은 76%를 기록하는 등 견고한 실적 시즌이 진행 중. 그러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마진율도 11.2%를 기록 중이라 5년 평균인 1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낙관적이지만은 않음. 그러나 보니 시장은 개별 업종과 종목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

이날 화두가 된 업종은 지역은행과 리튬 관련주. 지역은행의 경우 미국에서 7번째로 큰 은행인 트러스트 파이낸셜(-6.00%)이 예상을 하회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자 동반 하락. 물론, 트러스트는 여타 지역은행들과 달리 양호한 실적과 대출 추이, 평균 예금은 1.2% 감소한 4,08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견고함을 보여 나쁘지는 않았지만 총당금 증가가 발목을 잡았던 점을 주목. 이는 향후 지역 은행들의 총당금 증가 가능성을 높였고, 경기 둔화가 확대될 경우 은행 부실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왔음.

리튬 관련주는 세계 1위 리튬 매장국이자 2위 생산국인 칠레 정부가 리튬 산업 관련 국유화 계획을 발표하자 관련 업종이 급락. 최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지난해 리튬 산업을 국유화한 멕시코에 이어 칠레도 국유화 계획을 발표한 것. 물론, 민간 참여가 허용된 국유화라는 점에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완전한 국유화가 아니고, 칠레 의회에서 통과까지는 마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좀 더 지켜 봐야지만 관련 종목 불확실성 확대는 부담

이렇듯, 개별 기업과 업종의 변화 요인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음. 이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결국 시장은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개별 업종, 종목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아마존 강세 Vs. 앨버말 부진

아마존(+3.03%)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JP모건이 여타 전자 상거래 소매업 부문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고 주장하자 강세. 파이프 샌들러도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낙관적이라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 트러스트 파이낸셜(-6.00%)은 부진한 실적 발표 등으로 하락. US방코프(-3.57%), 키코프(-3.74%) 등은 부진. 반면, 퍼스트 리퍼블릭(+2.74%), 웨스턴 얼라이언스(+3.63%) 등은 반발 매수 속 강세

테슬라(+1.28%)는 최근 주요 차종 가격 인하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모델 S와 X 가격을 소폭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강세. P&G(+3.46%)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 힘입어 강세.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5.59%)는 핵심 클라우드 사업부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음에도 강력한 매출과 수익을 보고한 이후 강세. 일라이릴리(+2.78%)은 알츠하이머 관련 보장 한도 규제 완화 기대와 6월말 이전에 진행중인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데이터 기대하자 급등.

앨버말(-10.00%)과 리벤트(-5.45%) 등 리튬 업체들은 칠레 정부의 리튬 산업 국유화 계획 발표로 SQM(-18.57%)이 급락하자 동반 하락. 이 소식은 영국 증시에서 앵글로 아메리칸(-5.95%), 리오틴토(-5.71%) 등 광산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 US스틸(-2.95%), 스틸 다이내믹스(-1.26%), 뉴코어(-1.46%) 등도 하락. 프리포트 맥모란(-4.11%)은 양호한 실적 발표 불구 악천후로 2월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소식과 광산 업종 부진 여파로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87	대형 가치주 ETF (IVE)	+0.17
클린테크 ETF (CTEC)	0.00	중형 가치주 ETF (IWS)	-0.08
소매업체 ETF (XLY)	+1.10	소형 가치주 ETF (IWN)	-0.13
온라인소매 ETF (EBIZ)	-0.40	대형 성장주 ETF (VUG)	+0.13
미국 인프라 ETF (PAVE)	-0.47	중형 성장주 ETF (IWP)	+0.20
핀테크 ETF (FINX)	+0.34	소형 성장주 ETF (IWO)	+0.39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77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00
클라우드 ETF (CLOU)	+0.17	신중국 고배당 ETF (SDEM)	-1.16
사이버보안 ETF (BUG)	+0.88	신중국 저변동 ETF (EEMV)	-0.42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80	미국 국채 ETF (IEF)	-0.24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3.01	하이일드 ETF (JNK)	+0.27
바이오섹터 ETF (IBB)	+1.15	신중국 채권 ETF (EMBD)	+0.02
로봇&AI ETF (BOTZ)	+0.80	물가연동채 ETF (TIP)	+0.05
반도체 ETF (SMH)	-1.0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0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경기소비재	1,150.47	+1.20	+0.53	+4.35
필수소비재	798.68	+0.75	+1.68	+4.90
헬스케어	1,564.68	+0.68	-0.24	+5.39
커뮤니케이션	191.16	+0.32	-3.05	+1.27
유틸리티	353.78	+0.30	+1.09	+5.98
부동산	233.24	+0.17	+1.59	+4.47
산업재	851.44	-0.24	+0.75	+3.77
IT	2,587.05	-0.37	-0.46	+1.37
금융	552.37	-0.39	+0.98	+7.05
에너지	653.30	-0.59	-2.54	+9.24
소재	508.05	-0.91	-0.31	+4.9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매물 소화 속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0.97%, MSCI 신흥 지수 ETF는 0.9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8.2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03% 하락. KOSPI는 보합 출발 예상.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달러/원 환율의 상승 즉 원화 약세와 함께 테슬라의 실적 발표 후 급락, 그리고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관련 종목군 급락 등으로 부진. 특히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등으로 향후 수출 둔화 속도가 더욱 가파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한국 증시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 다만, TSMC와 램리서치 실적 발표 후 견고한 모습을 보인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였으나 테슬라 여파로 2차 전지 업종, 한-중 갈등으로 인한 면세점 업종 부진 등 업종 차별화 진행은 지속. 이 여파로 KOSPI는 0.73%, KOSDAQ은 1.91% 하락.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개별 업종, 종목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종목 장세를 보여 한국 증시 또한 이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TSMC 등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미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2% 하락한 점은 부담. 더불어 리튬 관련주의 부진 또한 한국 증시에서 관련 종목에 대한 이익 실현 욕구를 높일 것으로 전망

물론, 미국과 유럽 서비스업 PMI가 개선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특히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 실적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기 보다는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며 보합권 출발 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유럽 서비스업 PMI 개선

미국 4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49.2를 상회한 50.4로 발표돼 6개월내 최고치를 기록. 서비스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52.6을 상회한 53.7로 발표돼 12개월내 최고치를 기록

유로존 4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47.3보다 둔화된 45.5로 발표됐으나 서비스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55.0보다 개선된 56.6으로 발표.

독일 4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44.7보다 둔화된 44.0으로 발표됐으나, 서비스업 PMI는 53.7에서 55.7로 개선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채 금리,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

국제유가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특히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일부 완화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 미국 천연가스 가격과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날씨가 온화한 모습을 보이자 하락하는 등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을 진행.

달러화는 서비스업 PMI가 12개월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변화폭은 제한된 가운데 보험권 등락에 그침. 한편, 철광석과 비철금속 등의 하락으로 호주 달러가 달러 대비 약세폭이 확대된 가운데 캐나다 달러 등 상승환율이 달러 대비 약세폭이 컸던 가운데 역외 위안화 환율 등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소폭 약세

국채금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여기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진 점도 긍정적인 영향. 한편, 전일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금리의 높은 수준이 장기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과 높은 금리 장기화 언급 등도 국채 금리 상승 요인.

금은 견고한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연준의 지속적인 긴축 기조 가능성 등으로 경기 둔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 지속. 곡물은 대중국 수출 단가 하락과 온화한 날씨 영향으로 작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속 하락. 중국 상품선물 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82%, 철근은 2.60%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7.87	+0.65	-5.53	Dollar Index	101.822	-0.02	+0.27
브렌트유	81.66	+0.69	-5.39	EUR/USD	1.0986	+0.15	-0.05
천연가스	2.23	-0.71	+5.63	USD/JPY	134.16	-0.06	+0.28
금	1,990.50	-1.42	-1.26	GBP/USD	1.2432	-0.09	+0.15
은	25.28	-1.23	-1.57	USD/CHF	0.8923	0.00	-0.16
알루미늄	2,396.50	-1.01	+0.46	AUD/USD	0.6692	-0.76	-0.22
전기동	8,794.50	-0.97	-2.54	USD/CAD	1.3537	+0.45	+1.22
아연	2,719.00	-1.84	-4.81	USD/RUB	81.5679	+0.03	-0.86
옥수수	615.25	-1.72	-3.22	USD/BRL	5.0494	휴장	휴장
밀	673.00	-1.03	-2.82	USD/CNH	6.8985	+0.21	+0.37
대두	1,449.00	-1.33	-1.24	USD/KRW	1,328.20	+0.41	+2.26
커피	191.45	-1.26	-0.03	USD/KRW NDF1M	1,328.21	+0.50	+1.9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572	+4.00	+5.90	스페인	3.520	+3.40	+4.30
한국	3.318	-8.40	+2.80	포르투갈	3.306	+1.20	+2.00
일본	0.473	+0.10	-0.20	그리스	4.312	+0.70	+1.60
독일	2.481	+3.60	+4.10	이탈리아	4.352	+3.70	+5.5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